

SM, 삼성 트러블로 105달러 폭등!

FOB Korea 635-645달러 형성 ... 미국산 1만-2만톤 유입이 변수

SM 가격은 5월30일 FOB Korea 톤당 635-645달러로 105달러 폭등했다.

아시아 SM 시장은 일본의 Asahi Kasei, 타이완의 GPPC, 한국의 삼성중합화학이 플랜트 트러블로 가동에 차질을 빚음은 물론 수요까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무려 100달러 이상 폭등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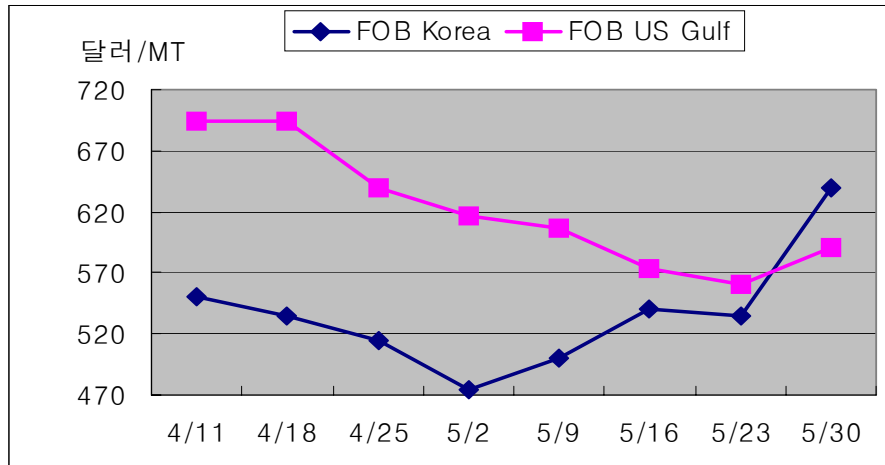
국제유가가 Dubai유 기준 배럴당 24-25달러로 강세를 지속하면서 석유화학제품 가격도 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, 수급밸런스에다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.

이에 따라 아시아 SM 가격은 지난주 초 FOB Korea 톤당 540달러에서 주말에는 640달러까지 폭등했으며, 일부에서는 645-650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.

다만, 미국산 SM 1만-2만톤이 아시아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700달러를 넘는 상승세로는 이어지지 못할 전망이다.

중국의 SM 가격은 ex-tank Jiangyin/Zhangjiagang 톤당 6200원으로 200원 상승했다.

SM 가격추이



한편, 미국의 SM 가격은 5월30일 FOB US Gulf 파운드당 26.0-27.5센트로 톤당 평균 590달러를 형성했다. 아시아 가격이 폭등하는 등 국제가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6/02>